

梅泉詩의 表現樣相

-疊字의 活用 상태를 중심으로-

황수정*

<차 례>

- I. 머리말
- II. 청각적 심상의 활용
- III. 시각적 심상의 활용
- IV. 시·공간적 심상의 활용
- V. 맺음말

I. 머리말

梅泉 黃玟(1855~1910)은 구한말 국가적 위기의식을 가장 절실하게 느끼면서 그것을 문학 작품을 통하여 구현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매천의 시세계는 그동안 논저에서 주로 내용적인 측면이 부각되었다. 따라서 그의 시세계에 대한 형식적인 측면이 잘 드러나지 않았다. 본고에서는 바로 이 점에서 논의의 출발을 한다. 이러한 형식적인 면을 바탕으로 매천 시 표현 양상의 일면을 파악하고자 한다.

언어는 소리와 의미가 일체를 이룬다. 언어의 음악성이나 의미는 홀로 고립될 수 없으며, 두 요소가 하나로 되어 시의 경이를 이룬다. 언어의 형식면에서 볼 때, 시는 소리의 연속이요, 소리의 구조이다. 또한 규칙적인

* 조선대학교

반복이란 동일성의 현상이며, 이 동일성의 현상을 리듬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따라서 리듬은 통일성과 연속성, 동일성의 감각을 준다.¹⁾ 따라서 이러한 반복성은 소리의 반복으로써 운율의 효과로 드러나기도 하고, 강조의 의미 등으로 활용되었다. 이에 본고에서는 반복적인 수사기교의 하나인 疊字의 활용 상태를 중심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첩자란 단음절의 중복이다. 첩자는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강조를 위해서 낱말을 되풀이하는 것이 있다. 둘째, 단음절어들이 중복됨으로써 특수한 뜻을 가진 새로운 복합어를 만드는 것이다. 셋째, 강조나 뜻의 바꿈이 없이 습관적으로 말을 되풀이하는 것을 들 수 있다.²⁾ 한시에서는 이러한 반복에 따라 새로운 의미와 정감이 드러난다. 따라서 매천 시의 표현 기교상의 한 특질인 첩자를 통해 이미지의 활용을 파악할 수 있다.

『詩經』에서도 ‘佩玉鏘鏘’으로 ‘鏘鏘’은 소리를 묘사하였고, ‘蒹葭蒼蒼’이라 했을 때 ‘蒼蒼’은 색의 선명도를 높이는 표현이다. 『시경』의 국풍에서만 첩자의 빈도수를 조사하면 ‘糾糾武夫’처럼 명사 위에 쓰인 것이 32군데, ‘我心悠悠’처럼 명사아래 103군데³⁾라고 조사된 바 있다. 이처럼 첩자는 시를 생동감 있게 하기 위한 장치로 사용하였다. 그리고 시 속에 내재된 의미를 더욱 사실적으로 전달해 주는 역할을 한다.

본고에서는 먼저 첩자를 통해 청각적 심상의 활용 상태를 파악하고, 활용 빈도수가 높은 소리를 파악하고자 한다. 이는 매천이 시에 있어서 다양하게 표현된 청각적 심상을 알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그리고 시각적 심상의 활용 상태를 고찰하여 수시로 표현한 어휘를 알아보하고자 한다. 이로써 매천의 시 저작에 대한 관습도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시·공간적 심상의 활용 상태를 고찰하고자 한다. 이는 보다 다양한 시의 지향점을 파악하는데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심상은 리듬과 함께 시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이다. 시인의 감각적인 경

1) 金垞五, 『詩論』, 三知院, 2000, 134~135쪽 참조.

2) 劉若愚 著, 李章佑 譯, 『中國詩學』, 明文堂, 1994, 71~72쪽.

3) 吳允熙, 『滄江 金澤榮 詩文學의 研究』, 동국대 박사학위논문, 1988, 111쪽.

험은 시 속에서 시어로 재탄생되고 형상화된다. 여기에는 시인이 표현하고자 하는 관념이나 상상적인 체험 또는 사물의 형태가 표현되어 있다. 이러한 시적 장치가 각각의 이미지로 그려지는 것이다.

이로써 매천 시에 있어서 첩자 활용을 통해 다양한 표현 양상을 파악할 수 있다. 이는 보다 감각적인 심상의 특징을 알 수 있게 할 것이다. 즉 매천 시의 문면에 나타나는 표현상의 한 특징을 고찰하는 데 의의를 두고자 한다.

II. 청각적 심상의 활용

시인은 언제나 사상과 감정이 융합되어 있어야 한다. 리듬도 정서를 환기하지만 이미지도 정서환기의 구실을 하고 있다. 이미지가 의미를 전달하고 정서를 환기할 때 직접성을 획득한다. 이러한 이미지의 선택은 바로 시인의 주관적 정서에 의해 좌우된다.⁴⁾ 따라서 한 편의 시 속에 표현된 이미지들은 시인의 세계관과 인생관을 알 수 있게 한다. 이처럼 언어에 의해 드러난 감각적 이미지로 시인의 감수성의 특질을 파악할 수 있다.

매천의 시에서도 청각적 심상의 첩자가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어 그 특징을 논구할 수 있다. 이러한 해당 시어나 시구는 풍부한 음악성뿐만 아니라 새로운 의미와 정감을 내포하고 있다. 먼저 청각적 심상의 활용을 살펴서 다양한 감각적 표현을 알아보겠다. 소리에 관한 다양한 표현의 고찰을 통해 시인으로서의 미세한 감각이 표현된 바를 알 수 있다. 매천 시에 활용된 첩자 중 청각적 심상이 드러난 부분과 횟수 및 다양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江風起急蕩絳帷 鈴鐸鏘鏘響六時(80)...금옥소리

4) 김준오, 앞의 책, 163~164쪽 참조.

急急啼復啼 知應爲夜短(87)... 급하게, 빠르게 우는 소리
 催梅警柳試春幢 淅淅鳴淅下夜江(104, 107, 167, 286, 214)... 물 흐르는 소리
 纖纖終覺水鳴灘 草樹朦朧晝夢殘(113)... 물 흐르는 소리
 精靈後千載 江漢注泠泠(134)... 맑은 물소리
 春風恰恰鳥來吟 悠悠關徼連芳草(142)... 새 우는 소리, 아득한 모양
 輕雲低度郭南村 淋淋一刻催花雨(145)... 방울져 떨어지는 소리
 石梯響霍霍 巨山氣候遲(148)... 돌계단의 울림
 啾啾簧舌吠 烏臺九死炎(151)... 왁자지껄 떠드는 소리
 土雨霏霏白遍山 雲陰慘薄日無影(167)... 비 오는 소리
 客去旋愁衣袂濕 浪浪山雨午鳴簷(203)... 비 소리
 肅肅聞松吹 虛堂一倍清(268, 271)... 소나무 바람소리
 嘖嘖空林怪鳥聲 水利講頻村炬亂(281)... 새소리
 鳴榔確確破擘嚙 烟樹籠村細水分(292 = 1권270)... 가볍게 깨트리거나
 관호 안의 숫자는 면수임. 『매천전집』 권3.

六橋雪後無邊月 不見啾啾被酒來(43, 55, 137).. 가볍게 놀라 지르는 소리
 淅淅流淅剪剪風 春寒猶在澗西東(73, 102, 380, 389)... 물 흐르는 소리
 登時快寫吟春稿 颯颯山風落筆初(75)... 바람 소리
 削削芒鞋雪有聲 茅根凹凸斷蹊成(116)... 눈 내리는 소리
 桐雨淋淋夜未收 松燈匠坐話閒愁(145)... 방울져 떨어지는 소리
 殘燼茶冷鳴鳴抱 (146)... 매미가 우는 소리
 一鳥庭空啄啄來 (146, 173, 416, 3권143)... 부리로 쪼는 소리
 日長鳥雀噪柴門 嫠婦鳴鳴晝室昏(83, 162)... 탄식하는 소리
 湛湛秋水落殘楓 淒絕藍山一畝宮(214)... 맑은 물소리
 山水易生林風驚 自顧確確曳筇聲(267)... 작게 들리는 피리 소리
 鳥啼啞啞復角角 驅之復來墻頭啄(307)... 까마귀 소리
 漁郎嚇嚇水燈亂 滿船橫載波齊絃(329)... 걸걸 옷는 소리
 翁媪呢呢慈過威 雲根地足寧甘譏(194)... 소곤소곤 거리는 소리
 鼓淵淵鉦泚泚 缶坎坎角嘈嘈(313)... 북소리, 징소리, 질장구, 나팔소리
 匏葉颼颼巷戶晴 (438)... 바람 소리
 관호 안의 숫자는 면수임. 『매천전집』 권15)

5) 이는 『매천전집』 권3과 권1을 바탕으로 추출한 것이다. 시는 첩자가 나오는 부분의

이처럼 매천의 시에서 첩자로써 청각적 심상의 활용 상태를 살펴보았다. 시에서 의성어의 사용은 시의 리듬감과 활력을 주는 동시에 시의 분위기를 환기시키는 역할을 한다. 여기에서 세 가지의 결과를 추출할 수 있다.

첫째, 매천은 첩자의 폭넓은 사용으로 청각적 심상을 다양하게 활용했다. 즉 의성어의 중복된 사용은 피하고, 보다 다양하게 사용함으로써 시의 다변화를 꾀했음을 알 수 있다. 물 흐르는 소리 중 '淅淅(9회)'과 새가 쪼는 소리 중 '啄啄(4회)'을 제외하고는 같은 소리를 3회 이상 사용한 예가 거의 없다.

둘째, 자연물에 대한 소리를 다양하게 포착하였다. 이는 인간이 내는 소리의 표현보다는 자연 속에서 들리는 소리에 더 많은 관심을 두고 형상화한 것이다. 즉 인간의 감정을 직접 형상화하기보다는 자연물에 의탁해서 표현하고자 한 것이다. 또한 자연의 소리뿐만 아니라 사물의 소리도 섬세하게 표현하였다. 이러한 소리를 형용한 첩자, 즉 의성어는 청각적 효과를 극대화하여 시의 울림을 더해준다. 이는 좀더 사실감에 접근한다. 따라서 시인의 예리한 언어감각과 더불어 풍부한 청각적 심상을 알 수 있는 바다.

셋째, 주로 ㅅ과 ㅈ, ㅊ 등 치음을 많이 사용하였고, 입성자를 많이 활용했다. 먼저 치음의 사용으로 淅淅(9회), 鏘鏘(1회), 纖纖(1회), 肅肅(1회), 嘖嘖(1회), 颯颯(1회), 削削(1회)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그 외 입성자의 사용은 啄啄(4회), 确确(2회), 急急(1회), 恰恰(1회), 角角(1회), 嚇嚇(1회)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치음과 입성자의 사용은 시에 강한 기세를 부여한다. 이로써 유장한 흐름보다는 명료함과 간결한 심상을 느낄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를 토대로 청각적 심상이 활용된 시를 살펴보기로 하겠다.

일부이다. 괄호 안의 면수 중 같은 첩자가 나오는 면은 함께 표기하였다.

鼓淵淵 鈺洸洸	북 소리 뚝뚝 징 소리 광광
缶坎坎 角嘈嘈	질 장구 등당 나팔 소리 뽕뽕.
旗獵獵 舞蹻蹻	깃발은 펄럭 춤은 덩실
獸面獰 虎冠曉	짐승 탈은 으르렁 범관은 우뚝.
園場井 竈雷殷地	뒷마당, 우물가, 부엌에 우레 소리 울리고
捲進擁 退奔驚潮	힘써 나갔다가 안고 물러가니 놀란 조수 달리듯.
門靈戶 神增新敬	문호의 귀신에게 새 공경을 더하니
林魍澗 俱忙遁逃	숲 도깨비 물귀신 바쁘게 도망치네.
鍾鎚手 攬立啖睛	종규 신이 손으로 붙잡아 눈알을 먹어치우니
噴血作 火全身燒	피를 뱉고 불이 일어 온몸이 타버리네.
鬼也有 膽亦應破	귀신도 쓸개 있다면 응당 부서지겠지
剡剡乞 命高其尻	번쩍번쩍 목숨 구걸로 꿈무늬를 쳐드네.
急急嚴 嚴驅出門	급급히 엄하게 문밖으로 내쫓으니
天地遼 廓月星昭	천지는 텅 비고 달과 별은 밝은데.
鳴金一 揮截然止	징 소리 한번 울려 끊을 듯 그쳐지니
壯士破 陣歌收鏡	장사의 파진이 징 소리로 거두는 듯.
廚深始 出虬吠聲	그제야 깊은 부엌에 삼살개 짖어대니
曠然籬 落增寥寥	특 트인 울타리엔 고요만 더하네.
却笑五 窮送不得	우습다 五窮을 얻지 못하고 보지 못하니
退之枉 作文中豪	한퇴지의 문중호걸 노릇만 함이여.

〈罷攤〉⁶⁾

민족 고유의 미풍양속을 계승하고 동시에 나라의 안위를 염려하는 바를 표출하였다. 여기서는 정월보름 풍속 중에서 역귀를 쫓는 굿하는 상황을 실감나게 그렸다. 특히 음향적인 효과를 극대화하여 시의 역동성을 추구하였다. 그래서 시에 리듬감을 주고, 생동감 있는 분위기를 이끌고 있다.

여기서는 소리의 표현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굿판에서 들을 수 있는 악기 소리를 모두 표현하고 있다. 북 소리 ‘淵淵’, 징 소리 ‘洸洸’, 질 장구 ‘坎坎’, 나팔 소리를 ‘嘈嘈’라 하였다. 이는 사물의 특징을 포

6) 황 현, 〈罷攤〉, 『매천전집』 권1, 전주대 호남학연구소, 1984, 313쪽.

착하여 청각적인 감각으로 재현한 것이다.

북 소리 ‘淵淵’은 웅장하면서도 깊이 있는 소리의 느낌을 살려내고 있다. 징 소리 ‘泔泔’은 맑으면서도 멀리 퍼져나가는 소리를 재현하였다. 질 장고 ‘坎坎’은 휘감아 돌아 나오는 듯한 소리의 표현이다. 또한 나팔 소리를 ‘嘈嘈’라 하여 가늘고 길게 퍼지는 소리로 그려냈다. 이처럼 시 속에 표현된 청각적 심상은 여러 악기 소리가 혼용된 어울림과 그로 인한 강인한 역동성으로 표출되고 있다. 이는 현장감과 함께 사실감을 증대시켰다.

이처럼 시는 신명나는 소리로 한껏 분위기를 고조시킨 후, 굿판의 여러 모양새를 묘사하고 있다. 이는 굿판에서의 깃발, 무당의 춤사위, 여러 짐승의 탈을 쓴 모양 등을 그린 것이다. 이후 이러한 강한 기세가 집안 곳곳에 울려 퍼져 좋지 않은 기운을 힘차게 밀어내고 있다. 여기에 귀신들의 겁먹은 모습과 목숨을 구걸하는 모양을 실감나게 표현하고 있다. 이는 상상적인 체험으로 시인의 감각적인 능력의 산물이다.

이렇듯 매천은 한 판의 굿으로 역귀를 쫓는 풍속을 묘사하였다. 그 이면에는 역귀와 같은 존재인 日人들을 멀리 쫓아내고 싶은 심정을 담고 있다. 이를 첩자로써 청각적인 이미지를 동원하여 역동성을 추구하였고, 현장감을 배가시켰다.

松下柴門相向開	솔밭 아래 사립문 서로 향해 열렸는데
秋陽終日在蒼苔	가을볕 종일토록 푸른 이끼에 남아 있네.
殘蟬葉冷鳴烏抱	찬 나뭇잎의 가을 매미 울음 울며
一鳥庭空啄啄來	빈 뜰에 한 마리 새는 모이 쪼며 다가오네.
粉甘葛笋咬爲筆	달콤한 칩이며 죽순 씹어 붓을 만들고
核爛榴房剖作盃	씨 화려한 석류 방은 쪼개어 잔을 만드네.
朱柿千林鄰舍富	붉은 감나무 천 그루 숲은 이웃집까지 넉넉하니
悔從初寓未曾裁	처음부터 일찍이 심지 않은 것을 후회하네.

〈偶成〉⁷⁾

7) 황 현, 〈偶成〉, 위의 책, 147쪽.

시골 마을의 가을 정경을 그렸다. 색채가 선명하게 부각되었고, 여기에 소리의 울림으로 생동감을 배가시켰다. 시골 마을에서 일어나는 정겨운 일상들이 섬세하면서도 역동적으로 묘사되었다. 수련은 시각적 묘사를 통해 인간과 자연물의 조화를 그리고 있다. 솔밭과 사립문, 가을별과 푸른 이끼 등 청정한 시각적 처리가 돋보인다. 이는 가을날 청량한 마을의 모습을 떠올리게 한다. 함련에서는 한가로운 자연물의 모습을 청각적 묘사를 통해 그려내고 있다. 여름날의 위용이 사라진 매미의 울음, 무리와 떨어져 홀로 모이를 쫓는 새. 즉 '鳴鳴'와 '啄啄'이라 하여 자연의 소리에 의탁하여 시인의 감정을 배치하였다.

리듬은 정서를 전달하는 가장 직접적이고 가장 힘 있는 매개체라고 할 수 있다. 리듬 자체가 정서의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이다. 음악가나 시인의 정서는 직접적으로 소리와 리듬에 드러난다. 따라서 리듬에 수반되는 정서를 환기시킨다.⁸⁾ 이처럼 시인은 계절이 바뀌면서 느껴지는 쓸쓸한 이미지를 청각적 효과에 실어내고 있다. 이렇게 인간의 감정을 자연물의 행동이나 리듬 속에 정서로 표출하였다. 그래서 사물에 생명력을 불어넣고 시에 속도감을 주었다.

여기서 첩자의 청각적 효과를 통해 시에 생명력을 부여하였다. 즉 차분히 정지된 화면에서 움직임과 소리가 있는 영상미를 추구하였다. 이러한 생명력은 다음 경련으로 이어져 시에 활력을 얻었다. 이는 '粉甘葛笋咬爲筆'로 경련 상구에 제시한 미각과 '核爛榴房剖作盃'로 표현한 하구에서 시각적 효과를 찾을 수 있다. 이로써 시에 있어서 다양한 감각적 묘사를 동원하여 생동감을 획득하였고, 특히 첩어의 사용으로 시적 분위기를 전환하였다.

이상으로 청각적 심상의 활용에 대한 것을 살펴보았다. 여기서는 다양한 첩자의 사용으로 의성어를 폭넓게 사용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의성어 사용의 중복을 피하여 심상의 다양화를 추구한 것이다. 또한 자연의 소

8) 朱光潛 지음, 鄭相泓 옮김, 『詩論』, 東文選, 1991, 183쪽 참조.

리뿐만 아니라 사물의 소리도 섬세하게 표현하였다. 그리고 인간의 감정을 자연물의 행동이나 리듬 속에 정서로 표출하여 정지된 화면에서 움직임과 소리가 있는 영상미를 추구하였다. 이는 역동적인 심상을 표출하는데 효과적이었다.

Ⅲ. 시각적 심상의 활용

音節美를 이루기 위해서는 시인의 탁월한 조어력과 관찰력, 표현력이 요구된다. 이는 시에 있어서 생동감 있는 심상을 불러오고, 시각적 형상화로 인하여 시의를 확대시킨다. 여기서 사물의 상태를 형용한 첩자에서는 보다 뚜렷한 시각적 효과를 볼 수 있다.

매천의 사물에 대한 인식과 감정 표현에 대한 자세 등을 파악하고자 한다. 이는 시인의 시적 감흥의 다양성을 살펴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가장 감각적인 표현을 통한 시적 형상화이므로 시인으로서의 중요한 자질 중 하나라 보겠다. 이에 대한 파악과 더불어 시인이 선호하는 시어를 통찰하고 詩作에 있어 관습적 의미를 파악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따라서 매천 시에 활용된 시각적 심상의 다양성을 보면 다음과 같다.

青青, 騰騰(6), 漠漠(4), 悠悠, 蕭蕭, 纚纚, 依依(3), 漫漫, 茫茫, 亭亭, 紛紛, 軋軋, 點點, 獵獵, 寂寂, 暄暄, 戎戎, 迢迢, 蜿蜿, 芋芋, 曖曖, 瑣瑣, 森森, 洵洵, 慘慘, 落落, 粲粲, 團團, 陣陣, 懸懸, 滾滾, 簌簌, 悄悄, 搖搖(2), 芒芒, 童童, 續續, 尖尖, 荒荒, 粼粼, 采采, 斜斜, 雜雜, 冥冥, 去去, 赫赫, 炎炎, 滴滴, 渺渺, 垂垂, 拂拂, 重重, 輕輕, 堂堂, 偃偃, 矯矯, 忽忽, 濛濛, 鞞鞞, 離離, 望望, 沈沈, 弊弊, 樹樹, 宿宿, 冷冷, 飜飜, 晶晶, 汪汪, 蒼蒼, 哀哀, 漫漫, 瞳瞳, 帖帖, 蓬蓬, 姊姊, 嫋嫋, 蓼蓼, 決決, 琅琅, 猗猗, 瞿瞿(1)

괄호 안의 숫자는 횟수임. 『매천전집』 권3

紛紛(16), 濛濛(10), 亭亭(9), 歷歷, 沉沉(8), 兀兀, 陰陰, 冷冷(7), 寥寥,

茫茫, 蕭蕭, 翩翩(6), 往往, 累累(5), 參參, 獵獵, 鬱鬱, 青青, 流流, 蒼蒼(4), 渺渺, 枝枝, 拂拂, 岸岸, 晃晃, 重重, 飄飄, 遲遲, 裊裊(3), 漠漠, 戢戢, 格格, 油油, 團團, 陣陣, 芒芒, 寂寂, 憂憂, 灑灑, 落落, 惺惺, 汨汨, 兩兩, 續續, 離離, 淙淙, 陳陳, 棲棲, 娟娟, 澄澄, 盎盎, 涓涓, 迢迢, 蓬蓬, 晃晃, 滾滾, 波波, 暉暉, 悠悠, 依依(2), 疊疊, 縮縮, 澹澹, 昂昂, 浩浩, 便便, 靄靄, 纍纍, 恢恢, 光光, 瀟瀟, 低低, 屹屹, 眇眇, 淚淚, 轉轉, 靡靡, 駸駸, 爛爛, 嶢嶢, 云云, 層層, 霍霍, 蚩蚩, 顆顆, 森森, 淺淺, 粼粼, 淳淳, 琴琴, 踈踈, 微微, 纏纏, 油油, 粲粲, 湛湛, 勞勞, 飛飛, 耿耿, 態態, 差差, 隱隱, 垂垂, 暄暄, 袞袞, 曖曖, 烘烘, 淒淒, 冉冉, 滄滄, 鱗鱗, 汪汪, 洵洵, 泱泱, 膊膊, 諤諤, 蹢蹢, 剡剡, 急急, 嚴嚴, 懸懸, 堂堂, 杳杳, 汜汜, 遠遠, 盤盤, 來來, 幢幢, 輝輝, 曖曖, 緜緜, 密密, 緊緊, 稍稍, 漫漫, 萋萋, 灘灘, 盈盈, 婉婉, 縮縮, 滴滴, 瑣瑣, 回回, 隱隱, 躍躍, 肅肅, 優優, 瀟瀟, 洄洄, 泛泛, 淨淨, 隱隱, 喑喑, 拂拂, 灣灣, 洋洋, 積積, 課課, 穆穆, 登登, 隊隊, 軋軋, 莽莽, 期期, 騰騰, 匝匝, 蜿蜿, 凡凡, 款款, 暄暄, 剪剪, 赫赫, 脩脩, 戎戎(1)

관호 안의 숫자는 횟수임. 『매천전집』 권1

이상의 고찰을 통하여 얻어진 바를 보면, 첫째, 매천은 사물에 대한 인식이 매우 다양하였다. 이는 많은 첩자로써 의태어를 활용하여 시의 정감을 풍부하게 하였다. 이렇게 청각적 심상에 비해 월등히 많은 첩자로써 시각적 표현을 하였다. 이는 뛰어난 조어력과 함께 섬세한 관찰력의 소산일 것이다. 이로써 시각적 심상이 다양하게 표현된 바를 알 수 있다.

둘째, 감정의 표현에 일관된 정조가 흐른다. 의태어 중에서도 紛紛(18회), 濛濛(11회), 亭亭(11회), 歷歷(8회), 沉沉(8회), 兀兀(7회), 寥寥(6회), 陰陰(6회), 鬱鬱(4회) 등이 가장 많이 사용된 疊字이다. 여기서 보면 시각적인 표현을 통해 차분하면서도 당당한 정조를 추구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자신의 주된 정조를 이어감으로써 일관된 정조를 이루었다. 이상과 같은 결과를 토대로 시각적 심상을 활용한 시를 고찰하고자 한다.

踈踈百許個 드문드문 흩어진 것은 백여 개이며
裊裊八九尺 간드러진 것은 8, 9척이나 되네.

蒼蒼淨須眉	푸르기는 수염과 눈썹을 깨끗이 하고
冷冷灑牆壁	냉랭하기는 담장 벽을 씻어주네.
穆穆澗風涼	穆穆한 시내 바람 서늘하고
蕭蕭山月白	쓸쓸한 산 너머 달빛 희기만 하다.
居然去人遠	심심하게도 사람을 멀리 떠나가니
長嘯懷古昔	긴 휘파람소리에 옛날을 생각해본다.
微微一徑深	미미하게 나있는 지름길은 깊은데
誰訪羊求跡	누가 羊이 찾는 흔적 찾을 수 있을까.

〈竹〉⁹⁾

대나무의 특징적인 모습을 포착하여 시화하였다. 여기에는 경물을 보고 느끼게 되는 정서를 담아낸 것이다. 주로 첩자를 활용하여 간결하게 표현하면서 자신이 인식한 경물의 이미지화에 주력하였다. 시작에 있어서는 형식적인 면으로 첩자를 많이 사용하였다. 이로써 시에 생동감과 함께 리듬감을 살려냈다. 첩자를 통해 대나무의 이미지를 더욱 강화시킨 것이다. 즉 시어으로써 경물에 대한 인식을 효과적으로 그려냈다.

일찍이 白居易는 『養竹記』에서 “대나무는 현명한 사람과 비슷한데, 왜 그런가? 대나무 뿌리는 단단하여, 단단함으로써 덕을 세우고 있다…(竹似賢 何哉 竹本固 固以樹德…)”라고 하였다. 이는 사군자 가운데 하나인 대나무에 대한 인식을 드러낸 것이다. 단순히 식물에 대한 묘사에 그치지 않고, 이를 인간의 성품에 빗대어 그려냈다. 또한 蘇軾은 『綠筠軒』의 3~6 구에서, “고기가 없으면 사람을 수척하게 하고, 대나무가 없으면 사람을 속되게 하네. 사람이 수척하면 오히려 살찌게 할 수 있으나, 선비의 속되면 고칠 수 없네(無肉令人瘦 無竹令人俗 人瘦尚可肥 士俗不可醫).”라고 노래하였다. 이처럼 대나무는 현명한 덕성과 함께 군자의 곧은 절개를 상징하였다.

매천은 이 시에서 다양한 시각적 이미지로 대나무의 상징성을 그려내고 있다. 따라서 주로 첩자의 활용 중심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먼저 ‘踈踈’이

9) 황 현, 〈竹〉, 『매천전집』 권1, 218쪽.

라 하여 대나무 밭 전체의 구도를 시각화하였다. 이로써 성글게 이루어진 대나무밭의 정경을 상상하게 하였다. 다음은 ‘裊裊’로 묘사하여 가늘고 길게 흔들리는 모습을 형상화하였다. 여기에 대나무 자체의 특질을 묘사하여 그 위용을 ‘蒼蒼’과 ‘泠泠’으로 표현하였다. ‘蒼蒼’으로 대나무의 색감을 부각하면서도 맑고 깨끗한 이미지를 심화시켰다. 또한 ‘泠泠’이란 촉감의 이미지를 부각시켜서 더욱 대나무의 깨끗하면서 곧은 절개를 상징화하였다.

이와 더불어 경물의 조화를 담고자 하였다. 화창한 시내와 쓸쓸한 산을 각각 ‘穆穆’과 ‘蕭蕭’로 표현하여 대나무의 정경과 어우러진 조용하면서도 차분한 이미지를 그렸다. 이렇듯 사물의 상태를 형용한 접자으로써 리듬감을 통해 유연성을 확보하면서도 강개한 이미지를 구축하였다. 이로써 뚜렷한 시각적 심상을 증진시켰다.

竹牖經旬始暢開 대나무 창가에서 열흘 지내다가 비로소 활짝 열어 보니
 晴天妍日滿池臺 맑은 하늘 고운 햇빛이 연못에 가득하네.
 不知春暮已如許 봄날이 얼마나 저물었는지 알지 못하는데
 飛絮紛紛去又來 버들개지 흩날리며 여기저기 떨어지네.

〈村居暮春〉 1首¹⁰⁾

시골에 살면서 느끼는 늦은 봄의 정경을 그렸다. 만개한 봄의 기운이 가득함을 표출하였다. 시인은 계절이 가고 있는 것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 어느 날 창을 열고 늦봄의 서정을 만끽하고 있다. 이처럼 한 폭의 그림 같은 정경은 시인의 여유로운 정서에서 비롯되었으며, 이는 시 전반에 청신한 미감으로 발현되었다.

회화에서 동작을 서술할 때는 반드시 ‘動’을 ‘靜’으로 변화시켜서 정적인 면으로써 모든 동작의 과정을 표현한다. 그런데 시가 정물을 묘사할 때에는 반드시 ‘靜’을 ‘動’으로 변화시켜서 시간상의 연속으로써 공간 속의 확대를 암시해야 한다.¹¹⁾ 이 시에서도 우선 맑은 하늘과 고운 햇빛이 연못에

10) 황 현, 〈村居暮春〉 1首, 『황현전집』 상, 아세아문화사, 1978, 288쪽.

가득한 모습을 통해 봄의 정적인 이미지를 살려냈다. 여기에 버들개지가 어지러이 날리는 모습을 ‘紛紛’이라 하여 소리 없는 작은 움직임을 그려냈다. 이처럼 정적인 이미지와 미세한 생명력은 강인하면서도 유연한 미감을 부여하였다.

出峽輕颺欲墮簷	골에서 난 바람 비너를 떨어뜨리고자 하고
高秋氣色已駸駸	높은 가을하늘 기색이 벌써 駸駸하구나.
楓松爛爛奈空畫	단풍 솔은 爛爛하여 빈 그림에 끼어들고
蟲鳥泠泠發至音	벌레며 새는 泠泠하니 음을 내며 이르네.
天末有懷時遠望	하늘 끝을 생각하다가 때론 멀리 바라보고
道中無賴自長吟	도중에 기댈 곳 없으면 스스로 길게 읊어 본다.
嶺腰俯瞰田園近	고갯마루쯤에서 가까운 전원을 굽어보니
惱殺家常復上心	고민은 일상임으로 다시 오를 마음 가지네.

〈踰嶺入郡界〉¹²⁾

이 시는 산마루에서 마을로 들어오면서 내려다 본 정경이다. 힘들게 고개에 올라오니 비너를 떨어뜨릴 정도의 시원한 바람을 맞이하였다. 화자가 여성적 시각이다. 하늘은 어느새 가을의 기색으로 ‘駸駸’하다고 하여 빠르게 변하는 모습을 그렸다. 이로써 높고 푸른 것을 연상할 수 있다. 여기에 단풍은 가을 햇살에 빛나는데 ‘爛爛’하다고 그렸다. 즉 가을 햇빛을 받고 반짝반짝 빛나는 모습을 묘사한 것이다. 여기에 생동감을 주는 벌레와 새의 모습을 관찰하였다. 가을을 맞이하는 살아 움직이는 물상에 대한 빠른 움직임이 그려진다. ‘泠泠’하다고 하여 쌀쌀하고 찬 분위기를 그리고 있다.

이렇듯 수련과 함련에서는 정적인 모습과 동적인 모습을 첩어로써 요약하고 있어 시에 긴장미를 준다. 중국시학에 “성음으로써 효과를 강화하여 소리와 정, 소리와 물건, 소리와 일 모두를 기묘하게 조화시킨다. 이때 비로소 시가 妙諦를 이룰 수 있다.”¹³⁾는 말이 있다. 이처럼 함련에서 첩자

11) 朱光潛 지음, 鄭相泓 옮김, 앞의 책, 201쪽 참조.
 12) 황 현, 〈踰嶺入郡界〉, 『매천전집』 권1, 148쪽.

의 기능을 충분히 활용하고 있다.

경련과 미련에서는 차분한 어조가 흐른다. 앞에서 보다 경쾌한 리듬감을 주었다면, 여기서는 템포를 늦추고 현실을 관망한다. 이는 시에 무게를 싣는다. 나아가면서 쌓이게 되는 고민들을 떨쳐버리고 싶지만, 오히려 일상 속에서 피하지 않고 맞서보려는 의지를 볼 수 있다. 차분하면서도 강개한 의지를 엿볼 수 있다.

지금까지 시각적 심상의 활용을 살펴보았는데, 먼저 매천의 사물에 대한 다양한 인식을 알 수 있었다. 이는 뛰어난 조어력과 함께 섬세한 관찰력의 소산일 것이다. 따라서 많은 첩자를 통해 사물의 상태를 다양하게 포출하였고, 이로써 시의 유연성을 추구하였다. 둘째, 감정의 표현에 일관된 정조가 흐른다는 것이다. 의태어 중에서도 紛紛(18회), 沉沉(8회), 兀兀(7회), 寥寥(6회), 陰陰(6회), 鬱鬱(4회) 등을 가장 많이 사용한 것에서 알 수 있다. 이러한 시어는 시 속에서 시인의 정서로 드러내는데, 이는 차분하면서도 당당한 정조를 이루었다.

IV. 시·공간적 심상의 활용

한시의 소재를 이루는 것은 時와 空과 情과 理이며, 한시에서의 情과 理는 대체로 時空과 연관되어 자연적인 시공의 推移를 바탕으로 드러나기도 하고 숨어버리기도 한다. 즉 情과 理는 時空의 景象에서 이탈하지 않고 시공을 투과하면서 형상화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다.¹⁴⁾ 따라서 시의 이해에 있어 시·공간적 심상을 파악하는 일은 중요한 것이다. 이는 시인의 다양한 시·공간적 시어 선택이 의미하는 바를 알 수 있게 한다. 즉 의미가 강조되고 어세를 부각시켰을 때 드러나는 정조를 파악하면 시인의

13) 吳允熙, 앞의 논문, 113쪽 참조.

14) 申用浩, 〈漢詩와 時空〉, 『漢文學과 漢文教育』 下, 보고서, 2004, 169쪽.

미학적 심상을 그려낼 수 있다.

여기서는 語辭를 반복 사용하여 새로운 의미의 복합어를 이루는 경우를 중심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이는 詩意를 한층 고조시키고 詩境을 넓히는 고도의 기법이라고 할 수 있다. 시·공간적 심상의 표출은 시간의 지속성과 공간적·심리적 상태의 묘사를 사실감 있게 드러내는 역할을 한다. 이처럼 복합어는 聲音的 중복도 있고, 意義的 중첩도 있다. 이는 감성 표현을 강렬하게 하는 동시에 語勢를 강화시킨다. 이로써 同字로서 중첩된 복합어의 다양성을 살펴보겠다.

家家(17), 處處(12), 年年(8), 日日(7), 深深(6), 小小, 種種(4), 團團, 人人, 卿卿, 陣陣, 曲曲(3), 津津, 藹藹, 仙仙, 萬萬, 夜夜, 隊隊, 面面(2), 生生, 申申, 軒軒, 幸幸, 念念, 頭頭, 烈烈(1)

괄호 안의 숫자는 횟수임. 『매천전집』 권3

一一(5), 樹樹(4), 葉葉, 筆筆(3), 行行, 船船, 個個, 箇箇, 區區, 朝朝, 群群(2), 森森, 面面, 六六, 三三, 重重, 村村, 麥麥, 事事, 世世, 燈燈, 盤盤, 稜稜, 時時, 昏昏, 閣閣, 夢夢, 言言, 水水, 巖巖, 馬馬, 灣灣, 歲歲, 物物, 隊隊, 峽峽, 來來, 童童, 雙雙, 首首, 戶戶, 種種, 脉脉, 妻妻, 白白, 嶽嶽, 棗棗, 峯峯(1)

괄호 안의 숫자는 횟수임. 『매천전집』 권1

이상의 고찰을 통해 복합어의 쓰임을 추출할 수 있다. 첫째, 장소에 대한 복합어의 쓰임이 많다. 즉 家家(17), 處處(12), 陣陣(3), 津津(2) 區區(2), 峽峽(1) 戶戶(1) 등이다. 이는 장소에 대한 복합어로서 同一字를 반복해서 많이 사용했다는 것이다. 이는 복합어를 意義的으로 많이 구사했다는 것을 파악하게 한다. 즉 앞서 밝혔듯이 복합어도 음향성을 추구하지만, 매천은 성음적 요소로서의 복합어의 사용보다는 어세를 강화시키고 그 뜻을 부각시키고자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둘째, 시간을 언급하는 복합어가 다양하게 사용되었다. 年年(8), 日日

(7), 夜夜(2) 朝朝(2), 昏昏(1), 時時(1), 歲歲(1) 등이다. 이는 다른 복합어에 비하여 다양한 同字로 표현되고 있어서 시의 문면을 더욱 다채롭게 하였다. 이로써 음향성의 측면과 의미를 강화시키는 역할을 동시에 이룩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시·공간적 심상을 활용한 시를 고찰하겠다.

歲閏春差晚 윤달 든 해여서 봄이 조금 늦어
 朝朝二月寒 2월인데도 아침 추위가 남았네.
 白風江外野 강 너머 들판에 하얀 바람 불고
 蒼日雪餘山 눈 남아 있는 산에 밝은 해 비추네.

〈往兔洞〉¹⁵⁾

이 시는 구례 토동에 관한 것이다. 토동은 구례에서도 인쪽에 위치한 곳으로 예로부터 서당이 있어 공부하는 사람들이 많이 드나들던 곳이다. 2월 새봄을 맞이하는 마음과 아직 추위가 가시지 않은 계절의 중간 지점을 노래하였다. 봄이 조금 늦게 시작한다고 하지만, 2월인데도 아침 추위가 대단했나보다. 더구나 토동은 산 아래 위치한 마을로 추위에 더욱 민감했을 것이다. 따라서 ‘朝朝’라는 동일한 글자를 반복하여 사용하고 있다. 이는 음향성의 효과와 함께 시간의 지속성, 즉 강조의 의미를 담고 있다.

시간이란 것이 오직 현재라는 순간만 있고, 이 현재란 순간의 무한한 연속 속에 과거·현재·미래라고 하는 시간의 三相을 갖게 한다. 이렇게 미적 소우주로서 내재하는 시·공간은 표현적 내용으로부터 필연적으로 규정되는 구조이다.¹⁶⁾ 따라서 ‘朝朝’라는 시간의 지속성을 도출하여 이미지를 강화시켰다.

또한 강 너머 들판에는 하얀 바람이 분다고 했는데, 이는 순간의 포착으로 아마도 눈발이 날리고 있었나보다. 섬진강 너머 들판에 일고 있는 하얀 바람은 남은 추위를 그대로 보여 준다. 그러나 산에 아직은 눈이 남아

15) 황 현, 〈往兔洞〉, 『매천전집』 권1, 155쪽.

16) 白琪洙, 『美學』, 서울대학교출판부, 2000, 61~62쪽 참조.

있지만 밝게 비추는 해로 인해 곧 봄이 다가오고 있음을 예감할 수 있다.
시인의 눈에도 봄을 기다리는 서정이 깃들어 있다.

珂笛輪軒處處春 아름다운 피리소리 고관들의 수레 곳곳마다 봄이지만
九街天暗馬蹄塵 길마다 하늘이 어두워지고 말발굽에선 티끌만 날리네.
不知雁塔留名地 안탐이 이름 남길 곳인지 알지 못하겠고
濟得蒼生有幾人 저 가운데 몇 사람이나 창생을 구제할 수 있으려나.
〈看文科放榜〉¹⁷⁾

이 시는 문과 급제자 방을 보고 소회를 읊은 것이다. 당시 벼슬하는 자들에 대한 냉소적인 태도를 읽을 수 있다. 새로운 인재에 대한 기대와 그에 미치지 못하여 허망하였던 정황을 포착하였다. 기구에서는 현장의 분위기기를 그렸다. 즉 요란한 축하 메시지로 거리 곳곳이 부산한 정경을 담았다. 그래서 ‘處處’라 하여 장소를 강조하였다. 이로써 聲音的 효과와 함께 意義的 의미를 배가시켰다. 따라서 겉으로 드러난 즐겁고 흥겨운 분위기를 이끌어 온통 봄이 온 듯한 모습을 담은 것이다.

그러나 승구에서는 실질적인 정황을 드러냈다. 백성들이 절감하는 힘겨운 삶의 모습을 실은 것이다. 이는 화려한 고관들의 삶에 비하여 백성들이 느끼는 절박한 현실의 불안과 절망감을 알 수 있다. 새로운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고 개인적인 치부에 머물고 말았던 벼슬아치로 인해 나라 전체가 어둠에 잠기고 허망함만이 가득함을 포착하였다. 여기서 말하는 ‘九街’는 기구의 ‘處處’와 같은 의미로 작게는 ‘길마다’, ‘곳곳마다’의 뜻이지만, 크게는 나라 곳곳마다, 즉 ‘온 나라’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겠다. 즉 벼슬을 얻은 사람들의 희망적 요소에 비해 길마다 넘쳐나는 불안하고 허무한 요소가 대비를 이루고 있다.

이로써 雁塔에 이름을 남겨 벼슬로써 백성들을 구제할 수 있는지 알 수 없다고 하였다. 안탐은 중국 사천성에 있는 탐으로 蘇軾이나 蘇轍처럼 급

17) 황 현, 〈看文科放榜〉, 앞의 책, 35쪽.

제자의 이름을 남긴 곳이다. 따라서 방에 오른 인물들 가운데 진정으로 백성들의 어려움을 살피고 구제할 사람이 있을지에 대한 의문과 염려를 담아낸 것이다. 이는 온통 잔치 분위기 속에서도 냉철하게 현실을 파악하고 내일을 예측하고자 하는 시인의 감성을 읽을 수 있다.

念念彌陀呼不應 생각마다 미타인데 불러도 호응하지 않고
一呼猶可奈千呼 한 번이면 될 것인데 천 번이나 부르네.
有人呼汝且千遍 혹시 남이 너를 천 번이나 부른다면
汝得於人無怒無 너는 그 사람에게 성내지는 않을는지?
月滿空山深閉戶 달빛 가득한 빈산에서 문 굳게 닫고
老僧輪盡水晶珠 노승은 계속해서 염주만 돌리고 있네.

〈戲贈念佛長老〉¹⁸⁾

염불에 대한 진정한 의미를 생각하고자 하였다. 무엇을 위한 염불인가에 의문을 제시하였다. 그래서 '念念'을 사용하여 同字로써 의미의 깊이를 더하고 있다. 즉 생각마다 미타인데, 아무리 불러도 호응이 없음을 그리고 있다. 그래도 계속 되풀이하는 모습을 통해 간절한 마음을 전하였다.

3, 4구에서는 예를 들어 묘사하고 있다. 다른 사람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내가 아닌 남의 입장을 놓고 생각해 보았을 때 타당성을 검토하는 자세를 보여준다. 만약 다른 사람이 나에게 도움 청하기를 많이 한다면 너는 어떻게 할 것인가로 자신을 되돌아보게 한다.

5, 6구에서는 노승의 일관된 행동을 묘사하였다. 시인이 보기에 우직하리만큼 자신의 일에 열중하는 모습이다. 비록 문을 굳게 닫고 있는 노승이지만 달빛이 가득한 산이고, 또한 그곳에서 무엇인가 열심히 하고 있다. 이는 세상과 단절된 채, 자신의 행동만 고집하는 것을 꼬집는 것이다. 그와 동시에 변함없는 행동에 대한 경의를 동시에 표하였다.

여기서는 복합어로 意義的 요소가 부각되어 강한 어세를 추구하는 것을

18) 황 현, 〈戲贈念佛長老〉, 『매천전집』 권3, 179쪽.

알았다. 또한 시·공간을 언급하는 복합어가 다양하게 사용되었다. 이는 시의 문면을 다채롭게 하였다. 따라서 음향성의 측면과 동시에 의미를 강조하는 역할을 하였다.

V. 맺음말

지금까지 매천 시의 표현 양상을 살펴보았다. 이는 첩자의 활용 상태를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먼저 청각적 심상의 활용에 대한 것을 살펴보았다. 즉 다양한 첩자의 사용으로 의성어를 폭넓게 사용했다는 것을 알았다. 이는 의성어 사용의 중복을 피하고 시의 다변화를 피하고자 한 것이다. 또한 자연의 소리를 많이 활용하였다. 따라서 자연물에 대한 다양한 소리의 표현은 시인의 탁월한 언어감과 풍부한 관찰력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리고 주로 치음과 입성자의 사용으로 청각적 효과 면에서 역동성을 확보하였다.

다음은 시각적 심상의 활용을 고찰하였다. 먼저 매천의 사물에 대한 다양한 인식을 알 수 있었다. 이는 많은 첩자를 의태어로 활용하여 뚜렷한 시각적 효과를 추구하였다. 또한 감정의 표현에 일관된 정조가 흐른다는 것이다. 여기서 보면 감정의 상태가 차분하면서도 당당한 정조를 이루었다.

끝으로 시·공간적 심상의 활용을 살펴보았다. 먼저 장소에 대한 복합어를 많이 사용했다는 것을 알았다. 여기서는 복합어로 意義的 요소가 부각되어 강한 어세를 추구하였다. 또한 시간을 언급하는 복합어가 다양하게 사용되었다. 이는 시의 문면을 다채롭게 할 수 있다. 따라서 음향성의 측면과 의미를 동시에 강화시키는 역할을 하였다.

이상의 결과를 보면, 청각적 심상을 폭넓게 활용하여 시인의 탁월한 언어감과 풍부한 관찰력을 보여주었다. 또한 시각적 심상의 활용을 통해서도 사물에 대한 다양한 인식을 표현하였다. 끝으로 시·공간에 대한 심상

의 활용을 통해 意義的 요소를 부각시켜 강한 어세를 추구하였다. 즉 첩자를 시의 유연성 획득을 위한 하나의 시적 장치로 사용한 것이다. 이는 매천 시의 주된 흐름이었던 說理的이고 역색한 시세계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으로 활용한 것이다.

■ 참고문헌

- 황 현, 『매천전집』 권1·3, 전주대학교 호남학연구소, 1984.
_____, 『황현전집』 상, 아세아문화사, 1978.
- 金垞五, 『詩論』, 삼지원, 2000.
白琪洙, 『美學』, 서울대학교출판부, 2000.
申用浩, 『漢詩와 時空』, 『漢文學과 漢文教育』 下, 보고사, 2004.
吳允熙, 『滄江金澤榮研究』, 國學資料院, 1996.
_____, 『滄江 金澤榮 詩文學의 研究』, 동국대 박사학위논문, 1988.
오병남, 『미학강의』, 서울대학교출판부, 2004.
劉若愚 著, 李章佑 譯, 『中國詩學』, 明文堂, 1994.
李鍾默, 『山水와 生態와 文學』, 『한국한문학연구』 제37집, 한국한문학회, 2006.
_____, 『한국 한시의 전통과 문예미』, 태학사, 2002.
嚴 羽 著, 裴奎範 譯註, 『滄浪詩話』, 다운샘, 1998.
정 민, 『한시미학산책』, 솔, 2003.
朱光潛 지음, 鄭相泓 옮김, 『詩論』, 東文選, 1991.
황수정, 『梅泉 黃玆의 詩文學 研究』, 조선대 박사학위논문, 2006.

〈Abstract〉

Expression Aspect in Poetry of Maecheon

-focusing on use of cheopja(疊字)-

Hwang, Su-jeong

This study expression aspect in poetry of Maecheon. It focuses on use of cheopja(疊字). First, it examines use of acoustic image. He used a variety of onomatopoeic words for cheopja(疊字). That is, he evaded repetition of onomatopoeic words to pursue originality of poetic words. He also used natural sounds. It indicates that he has outstanding linguistic sense and abundant observation. And he used dental sounds and Ipseongja to secure strong accent of acoustical effects.

Next, this study examines use of visual image. First, it finds that Maecheon recognized things in various angles, which doubled dynamic senses of poetic words. He also maintained consistent virtue in expression of his feeling. That is, his poetry is full of depressed and calm feeling.

Finally, this study examines use of time and space image. He also used various compounds on time. It emphasizes different contents of poetry. Therefore, it helps reinforce acoustical aspect and meaning at the same time.

Based on the results above, Maecheon's repetitive technique was used as an alternative to overcome his descriptive and awkward

poetic world as demonstrated in the theses on his poetry. That is, it can be suggested that it was used as a poetic device to acquire flexibility of poetry.

Key words: expression aspect, cheopja(疊字), dynamism, flexibility, poetic device